

부안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도교육청, 교육부 공모 선정... 변산초에 어린이집·돌봄센터·도서관 등 들어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업비 55억 원을 지원받아 부안군과 함께 변산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 학교복

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5년 동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

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도의회, 학교 구성원 및 지자체 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의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설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부모협의회·전북학생의회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전주온빛중학교 앞에서 가졌다.

도내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보호에 힘 모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전북학생의회 등 온빛중 앞에서 캠페인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나섰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부모협의회·전북학생의회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육공동체 내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14개 시·군별 24개 거점학교에서 진행됐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학

부모협의회·전북학생의회는 학생 등 교시간에 거점학교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장에게 실천 약속을 전달했다.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협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의 인권이 존중되고,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온빛중학교에서 열린 캠페인에 참석한 전북학생의회 최현호 의

장은 “지난 8월 17일 임정문에 이어 전북학생의회 의원들이 아닌 도내 학생들도 교육활동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전북학생의회 의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캠페인을 통해 공교육의 교육력이 회복될길 바란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부성과 전문성이 존중받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2024학년도 미래학교 담당자 협의회 개최

도교육청, 신규 선정 66교 교장 등 18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일 청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4년 신규 전북미래학교 교장, 교감, 담당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4학년도 신규 전북미래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37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1교 등 모두 66개

교의 교장, 교감, 담당교사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 전북미래학교로 선정된 66개 학교는 2024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중점과제와 자율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1교당 4,000만원의 기본 운영비와, 학급당 100만원의 예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운영해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장, 교감, 담당교사는 오는 22~23일 열리는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전북미래학교는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면서 “AI·디지털 기반의 교육활동, 미래역량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그 성과가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청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4년 신규 전북미래학교 교장, 교감, 담당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의 교원보호법 사례 논의

제9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14일 전주병회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9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전북 진로교육의 현 시점, ‘국의 교원보호법 사례’,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전북 진로교육의 현 시점’에서는

진로교육법과 타 시도 진로교육 조례 제정 현황에 대비한 전북 진로교육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봤다.

또 ‘국의 교원보호법 사례’에서는 최근 교육계의 이슈로 떠오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필리핀 법안 내용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콜로키움 마지막 주제인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정책 동향’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타시·도와 전북의 동향을 살핀 후 미국, 일본 등의

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약 7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 초·중·고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콜로키움 현장지원단’의 사례 운영으로 현장밀착형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과 의견이 오고갔다.

한편 이날 콜로키움 자료는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모든 학교에도 PDF 파일로 송부된다.

‘제10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다음 달 10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학술·문화·체육 아우르다

전북대, 오늘 ‘학문체’ 개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5일 소운동장에서 학술과 문화 그리고 체육까지 아우르는 가을 축제인 ‘학문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공연 및 취업클리닉, 야시장 알림의 거리, 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학문체’는 전북대 학생들의 선·후배 간 교류를 확산하고 대학 생활 적응 및 진로 설계,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전북대 교수밴드와 인디가수 등이 문화공연에 함께하며,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야시장도 운영된다.

특히 취업클리닉 ‘취업을 JOB아라!’에서는 인성역량검사 및 자소서·면접 컨설팅 부스 등의 취업 관련 체험 부스와 도내 청년정책 이해를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

해 학생들의 취업 설계를 돕는다.

진로 타로, 면접 메이킹업 및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등의 부스들도 배치해 학생들의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의 거리를 통해 역사와 상식, 우리말 퀴즈로 카테코리를 나누어 다양한 퀴즈를 진행하고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학생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전북현대모터스와 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 중심의 대학을 실현해 가는 전북대가 이번 학문체 축제를 통해 학생과 대학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밀착형 복지 실현과 학생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우리학생들에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원안심서비스 확대·운영

도교육청, 모든 희망학교 지원... 20일 서비스 제안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원안심서비스를 전면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안심서비스는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등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서비스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51개교에서 신청,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교원안심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150만원 이내의 예산이 지원되며, 학교별로 구성원 합의를 거쳐 안심번호를 발급하거나 녹음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 안심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통해 근무시간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연락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베트남 잘라이성 공무원 대표단이 14일 전주기전대학을 방문했다.

베트남 잘라이성 정부 대표단, 기전대 방문

베트남 잘라이성 공무원 대표단이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을 방문했다.

14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2023년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된 베트남 잘라이성의 전문사범대학 역량강화를 통한 소수민족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주기전대학은 베트남 잘라이성에 시설 및 기자재, 소수민족 유아교육에 필요한 이종언어, 전공현장능력, 디지털활용능력 교육을 지원한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특히, 베트남 잘라이성 공무원 대표단으로는 도당위원회 상임부장관인 짜우녹두안을 비롯해 교육훈련국, 투

자계획국 등 총 12명이다. 이에 전주기전대학과 베트남 잘라이성의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체계를 돈독히 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기전대학은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베트남 잘라이성 소수민족 공연단을 초청할 수 있도록 후원, 16일과 17일 2차례 공연을 진행한다.

조희천 총장은 “이번 베트남 잘라이성 공무원 대표단이 우리 대학에 방문해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내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동아리 문화제 행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14일 2023학년도 동아리문화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학생 동아리는 취미, 봉사, 학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건전한 공동체 문화와 창조적인 대학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각 분야의 동아리에서 한 해 동안 활동한 성과를 선보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동아리간 결속을 다지고 협동심과 애교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동아리 부스에서는 종이접기, 추기, 과녁판 맞추기, 초성게임, 밸런스게임, 영화제목맞추기 등 각종 레크레이션이 진행됐다. 저녁에는 파노라마, 카스탈리엔, 댄스매니핑과 광주교대 동아리의 초청공연도 이어졌다.

박병춘 총장은 “재학생들이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대학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16~24일 전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18개 종목 379팀 참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24일 2023년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대회지원단 및 종목별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체육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열린다.

경기는 종목별로 16~17일, 23~24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추진 운영 종목에 맞춰 18개 종목 58개 부별 경기가 치러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교육지원청 리그를 통해 단일학교팀으로 출전한 초등학교 133팀(1,632명), 중학교 147팀(1,864명), 고등학교 99팀(1,263명) 등 14개 시·군을 대표해 379팀 4,75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한편 축구·농구·배드민턴 등 18개 종목의 부별 1위 팀은 오는 10~11월 중 17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추진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이랜드파크 컨싱턴호텔앤리조트와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3일 지역혁신관 1층 호텔식음료서비스 실습실에서 (주)이랜드파크 컨싱턴호텔앤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수 부총장과 권순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원창 인사실장, 유수민·이현우 부총지배인, 김유리 인사배니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안세길 학과장, 호텔경영학과 심영국·임형정·카피오·토드 교수와 학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권순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컨싱턴호텔앤리조트의 미래 발전계획을 소개하며,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더 지속해서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인수 부총장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졸업생들을 이처럼 훌륭하게 성장시켜 준 데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이랜드파크 컨싱턴호텔앤리조트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유인실 시인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양병호)이 유인실 시인을 초청해 백석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해보는 인문학 특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시인들의 시인 백석의 삶과 문학’을 주제로 15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됐다.

한국 현대시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백석, 그는 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시인이 되었는지 이번 특강을 통해 그의 생애와 작품세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